

원화의 국제화 현황과 과제

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시 원화결제 비중이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, 자본거래에서도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보유액이 증가하는 등 원화사용이 확대되고 있다. 국내 기업들(응답업체 199개사)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원화사용 업체 비율은 6.0%(12개사)였으나, 향후 3년 이내에 원화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4.1%(28개사)에 달해 원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 최근 한·중간 통화스왑자금의 무역결제 지원, 원-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추진으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. 따라서 지금이 한·중간 원-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위안화뿐만 아니라 원화사용 확대를 추진해나가야 할 시기이다. 특히, 본·지사간 무역거래 또는 결제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송금거래방식 이용, 대중국 수출입 거래 모두를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원-위안 거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. 동시에 중국, 미국, 일본, 유로지역 등 주요 무역·자본거래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-엔 직거래시장 재개설 등 이들 국가와의 이종통화 직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.

1 원화국제화란?

- (원화국제화 개념) 원화국제화란 원화의 사용범위가 해외로 확대되는 것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는 물론 비거주자간 거래에서도 원화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
 - 원화국제화가 진전될 경우 원화가 국내에서 갖고 있는 계산단위, 결제수단 및 가치 저장수단 등의 기능이 국제 무역, 금융, 외환거래로 확산
- (원화국제화의 필요성) 원화국제화는 달러화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대외 경제의 충격을 내생화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거래비용 절감 및 화폐주조차익*의 획득에 기여
 - * 화폐주조차익(Seigniorage) : 통화발행으로 발생하는 화폐의 액면가치와 제조비용간의 차이
- (원화국제화 논의)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오던 원화국제화 논의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주춤하다가 최근 중국과의 통화스왑 자금 무역결제 활용 및 원-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논의 등을 계기로 재 부각
 - 정부는 해외 투기자본의 유입을 우려해 자본거래 규제 완화보다는 무역자금 원화 결제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원화국제화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

2

원화국제화 현황

- (무역거래)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시 원화 결제수요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해 옴
- 원화 결제 비중은 1995년 0.2%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 기준 2.9%에 이룸
 - *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시 원화 결제 비중(% , 수출입 평균)
 - : 0.2('95) → 0.5('00) → 1.1('05) → 1.8('10) → 2.7('11) → 2.8('12) → 2.8('13) → 2.9('14.상반기)
 - 2014년 상반기중 수출시 결제통화는 미 달러화가 85.4%, 유로화 5.9%, 엔화 3.2%, 원화가 2.0%를, 수입시는 미 달러화가 84.5%, 유로화 5.6%, 엔화 5.1%, 원화가 3.8%를 차지
 - * 2014년 상반기 원화의 결제 비중은 2013년 대비 수출이 0.2%p 하락한 반면 수입은 0.4%p 상승
 - 지역별로는 수출거래시 對중동('14.2/4분기 기준 11.1%), 對일본(4.1%) 원화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, 수입거래시에는 EU(13.6%), 미국(5.0%)과의 원화 결제 비중이 높은 편임.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원화 무역결제 비중은 2.0% 미만으로 저조
- 그러나 주요 수출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자국통화 무역결제 비중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
- 올해 상반기 기준 자국통화 무역결제 비중은 일본이 28.5%, 중국이 16.9%이나, 우리나라는 2.9%에 불과
 - 일본의 경우 엔화 무역결제 비중은 소폭 등락이 있으나 30% 내외를 유지
 - 중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14년 들어서는 17%에 근접

한중일의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결제비중

(단위 : %)

	2012		2013		2014
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
일본	31.2	30.7	28.1	28.1	28.5
중국	7.5	9.3	10.9	12.4	16.9
한국	2.9	2.8	2.7	2.8	2.9

주 : 상품 무역 기준,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결제비중은 수출입 평균

자료 : 한국은행, 일본 세관청, 중국 인민은행, 중국해관총서, CEIC

- (자본거래) 원화표시 자산에 대한 비거주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

- 특히,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보유액은 2008년 37.9조원에서 2014년 7월 98.1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, 이는 동기간 동안 원화국제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냄
 - *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보유액(조원) : 37.9('08) → 91.0('12) → 94.7('13) → 98.1('14.7월)
- 또한,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(NDF) 거래가 증가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확대
 - *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(NDF) 거래규모(억달러, 일평균 기준) : 60.9('11) → 54.6('12) → 55.5('13) → 63.2('14.1분기)
 - *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비중 추이(%) : 27.2('08) → 32.5('12) → 33.0('13) → 33.4('14.7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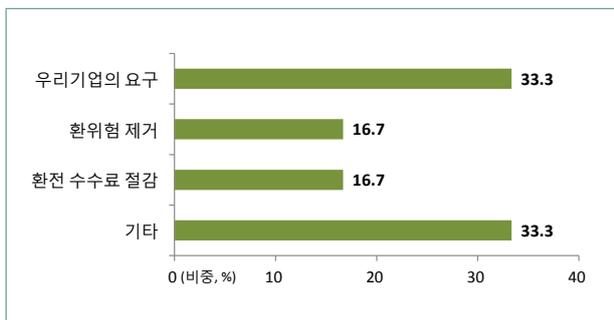
3 원화 무역결제 수요조사

설문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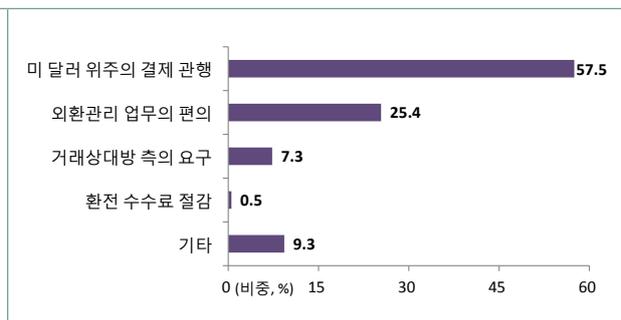
- 조사내용 : 원화 무역결제 수요조사
- 설문기간 : 2014. 9. 15 ~ 9. 22
- 설문대상 :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중 對중국·동남아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
- 조사방법 : 온라인 및 팩스 설문
- 응답기업 : 199개 업체 (중국 또는 동남아시아와 무역거래를 하는 국내기업)
 - * 거래상대국과의 무역규모(업체비율) : 10억원 이하(65.6%), 10~50억원(25.2%), 50~100억원 (3.8%), 100억원 이상(5.4%)

-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가 주력시장인 수출입기업(199개사 응답)의 대부분은 달러를 무역결제에 활용하고 있는 반면 원화 무역결제 이용 업체 비율은 낮음
 - 응답업체의 6.0%(12개사)만이 원화를 결제에 활용하고 있으며, 94.0%(187개사)는 달러 등 다른 나라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
- 미 달러 위주의 결제 관행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무역거래시 미 달러화로 결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무역업체들은 우리기업의 요구로 원화를 무역결제에 활용하고 있음
 - 무역결제에 원화를 사용하는 이유로 우리기업의 요구(33.3%)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, 환위험 제거(16.7%), 환전 수수료 절감(16.7%) 등도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
 - 반대로 미 달러로 무역결제를 하는 이유로는 미 달러 위주의 결제 관행이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(57.5%)을 차지했으며, 외환관리 업무의 편의(25.4%)가 그 뒤를 이음

무역결제에 원화 사용 이유(응답비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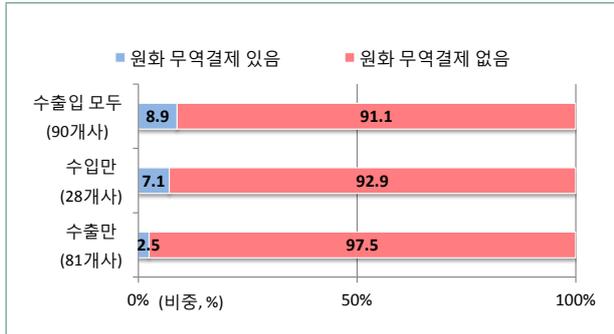


미 달러로 무역결제 하는 이유(응답비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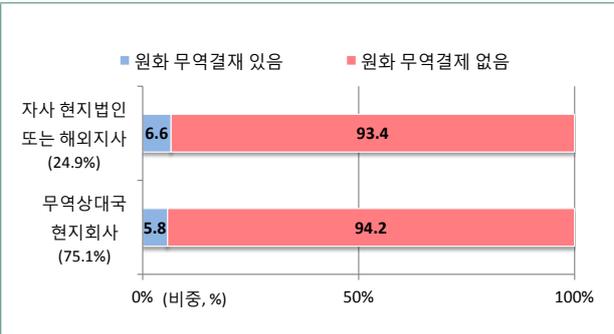


- 무역상대국과 수출입 거래 모두를 하고 있는 업체일수록 또는 본·지사간 무역거래인 경우 원화결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
 - 무역상대국과 수출(응답업체의 2.5%가 원화사용) 또는 수입만(7.1%) 하는 업체보다 수출입 거래 모두(8.9%)를 하고 있는 업체의 원화사용 비율이 더 높음
 - 무역거래 상대업체가 현지회사(5.8%)일 때보다 자사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인 경우 (6.6%) 원화사용 비율이 더 높음

수출입 유무에 따른 원화결제(응답비율)



무역거래 상대업체의 형태에 따른 원화결제(응답비율)



중소기업 원화 무역결제 사례-무역상대국의 한국지사를 통한 대금결제

전북 전주 소재 중소기업 A사는 특장차를 일본과 중국 등에 수출하여 연간 약 20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. 대일본 무역거래의 경우 일본에 특장차를 수출하고, 수출대금은 한국 지사를 통해 송금 방식으로 원화를 받고 있다. 이를 통해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환위험을 제거하고 있다.

□ 응답 업체들(199개사)의 14.1%(28개사)는 향후 3년 이내에 무역결제 통화로 원화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○ 원화사용 이유로 환전수수료 절감, 환위험 제거(43.6%)와 영업시 교섭력 증대(43.6%)라는 응답이 90% 가까이를 차지했으며, 외환관리 업무상 편의라는 응답은 10.3%를 차지

○ 무역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원화로 결제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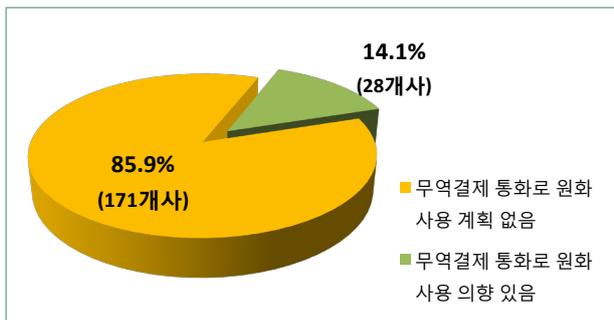
* 원화 무역결제 희망업체의 거래상대국과의 무역규모

: 10억원 이하(업체비율, 55.1%), 10~50억원(28.6%), 50~100억원(8.2%), 100억원 이상(8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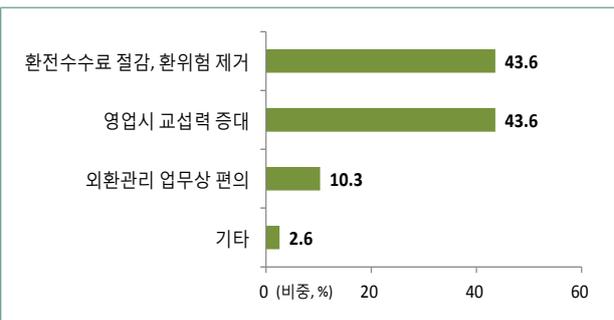
* 무역규모별 원화결제 희망업체 비중

: 10억원 이하(11.2%), 10~50억원(15.1%), 50~100억원(28.6%), 100억원 이상(20.0%)

향후 3년 이내 무역결제에 원화사용 의향(응답비율)



원화로 무역결제 희망 이유(응답비율)



4 원화국제화의 제도적 추진현황

- 원화국제화를 위한 제도적 부분에서 국내 원화사용에는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으나, 해외에서의 원화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상황
 - 2000년대 들어와 경상수지 흑자기조 하에서 원화국제화는 꾸준히 추진되었으며, 2006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과정에서 외국인의 원화 보유 및 거래 확대를 위한 조치*가 취해짐
 - * 비거주자의 원화차입한도 확대,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원/달러 통화선물 상장,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,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 등
 - 그러나 비거주자의 원화사용이 자유원 계정*을 통해 국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약하고 있고 자본거래에서는 부분적 허용에 그치고 있음
 - * 자유원 계정이란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는 원화예금계좌로, 원화의 국제결제를 위해 쓰이고 외화와의 교환이 보장됨
 - 최근 들어 한·중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원화대출* 및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원화 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원화국제화에 있어 일부 진전이 있었음
 - * 해외 은행 또는 기업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통화스왑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(2014년부터 시행)

통화기능별 원화국제화 추진현황(제도적 측면)

주요 기능	제도적 자유화 정도
가치척도 기능 (가격 표시, 계산단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상거래 측면에서의 원화거래 : 자유화(1988~1991) • 자본거래 측면에서의 원화거래 : 자유화(1992)
교환수단 기능 (결제수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상거래에서의 원화결제 : 제한적 / “자유원 계정”을 통해서만 가능(1996) • 자본거래에서의 원화결제 : 부분적 허용 * 국내증권·선물 투자절차에 따른 지급·결제, 해외거래소의 장내거래 결제 등
가치저장수단 기능 (대외준비자산 보유, 차익거래활동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화 예금 : 제한적 / “자유원 계정”을 통해서만 가능(1999~2001) • 비거주자의 원화표시 자금조달 : 300억원까지 허용(2001~2007) * 300억원 초과 원화 차입시 한국은행 신고 등 ※ 한중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원화대출 :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 개설로 가능(2014) • 비거주자에 의한 원화표시 증권 발행 : 허용(2001~2006) * 비거주자 원화증권 발행시 기획재정부 신고

자료 : 기획재정부, 김경수(2014), “원화국제화: some conceptual issues”, 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포럼 발표자료 참고

5 원화국제화를 위한 과제

-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시 원화결제 비중이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, 자본 거래에서도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보유액이 증가하는 등 원화사용이 확대
- 중국 또는 동남아와 무역거래를 하는 국내 기업들(응답업체 199개사) 대상 설문조사에서 현재 원화사용 업체 비율은 6.0% 였으나, 향후 3년 이내에 원화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4.1%에 달해 원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
- 한·중간 원-위안화 직거래시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위안화뿐만 아니라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원-엔 직거래시장 재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국내 원-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선을 위한 거래·결제 시스템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원-위안 무역결제의 장점(거래비용 절감, 환위험 제거 등) 및 활용관련 정보제공 등 대업체 홍보 강화로 충분한 거래수요 확보
 - 중국, 미국, 일본, 유로지역 등 주요 무역·자본거래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-엔 직거래시장 재개설 등 이들 국가와의 이중통화 직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함
 - * 이러한 차원에서 '96.10월 개설된지 4개월 만에 유동성 부족으로 폐쇄된 엔-원 직거래시장 재개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은 엔화 공급대책을 적절히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음
- 자본거래 부문에서도 비거주자의 원화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화됨에 따라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한도 상향 조정과 원화계좌이체 제한 완화 필요
 -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규정*에 따라 역외 원화시장 개설을 불허
 - *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(7-8조) 및 처분(7-9조) 사유에 경상거래 및 일부 허용된 자본거래(상장증권의 매매, 통화스왑자금 관련 거래 등) 이외의 비거주자간 원화 이체 및 처분을 제한
 - * 반면, 중국은 역외 위안화 시장을 허용하여 일본, 러시아에 각국 통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시장을 개설했으며, 반대로 미국, 일본, 러시아, 말레이시아, 호주, 뉴질랜드, 영국은 중국내 역외 통화시장을 개설
 -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키워 원화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*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, 원화국제화 과정에서 대외부채의 증가속도가 대외자산보다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해외충격에 대비하여 감독기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됨
 - * 위안화 등 원/달러 이외의 환 헤지 상품 개발,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국가의 해외거점 확대, 현지 은행과의 업무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함
-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, ASEAN+3 및 RCEP(ASEAN+6)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진전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실물경제, 금융시장의 허브로서 핵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원화의 국제화에 대한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시기임

문의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 문병기 (6000-5185, bkmun@kita.net)
 연구원 강내영 (6000-5259, nykang87@kita.net)